



**KTEE**  
Ministries

제 36호 2023년 10월 25일

KTEE가 전하는 사역 이야기

#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용

SEAN + KTEE

**Dr. Markus Voelker 방문 + 인터뷰**

KTEE 익스텐션센터 교회 탐방

**광주 빛소리교회**

영상 소개

**SEAN, TEE, 세미나**





Dr. Markus Völker 방문

## SEAN과 KTEE, 깊은 이해와 파트너십 강화

우리 국제본부인 SEAN International 디렉터 Markus Völker (이하 Dr. Völker)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 까지 KTEE Ministry를 공식 방문했다. Dr. Völker는 전임자인 Terrick Barratt 목사의 뒤를 이어 국제본부 디렉터로 부임하였다. 그의 부임후 한국을 방문하기 원했으나 Covid19로 인해 미뤄지다가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두 번의 강의에서 SEAN 사역과 최신 TEE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

## KTEE 사무실 방문과 TEE 세미나

30일 KTEE 본부에서 브리핑 시간이 있었다. 지난 20여년간 KTEE를 통해 한국에서 일어난 TEE사역에 대해 나누고,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시에 Dr. Völker는 최근 SEAN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언어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을 설명했고, 이러한 시도들이 KTEE와 한인 TEE 사역자들, 특히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이번 방문 일정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TEE 세미나에 함께 하는 것이었다. Dr. Völker는 두 번의 특강을 통해, SEAN의 역사와 전 세계 TEE 사역의



지구촌교회에서 Dr. Völker와 함께 한 세미나

현황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KTEE 익스텐션 교회 방문

주일에는 KTEE 익스텐션 센터 교회 두 곳을 방문해 설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TEE를 통해 세워져 가는 신촌 '나의교회'(담임 : 곽병훈 목사, 청년네트워크 대표)를 방문했다. 특별히 이 날은 나의교회 3주년 감사예배로 더 의미가 있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예배, TEE를 통한 은혜에 대한 간증과 감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다.



'나의교회' 곽병훈 목사님과 함께



'지구촌교회' 김형석담임목사, 통역 김홍진선교사와 함께



세퍼드라이프 수료자들의 특송

오후에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TEE의 모판이 되어 주었으며, 세미나 장소와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는 서울 지구촌교회(담임 : 김형석 목사, 원로/선교 : 조봉희 목사)에서 Dr. Völker가 메시지를 전했다. TEE 훈련생들이 함께한 이 예배에서는 TEE 수료자의 간증 뿐 아니라, 특별히 세퍼드라이프 수료자들의 합창은 특별한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 한국 투어

Dr. Völker는 이번이 첫 방문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일정들 속에서 한국을 잘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먼저 선교사가 설립한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대학인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투어를 하는 기회를 가졌다. 광혜원, 언더우드 상 앞에서 지난 100여년 한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에 대해 들었다.

본부에서 가까운 양화진 선교사 묘역도 방문했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묘역을 걸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공간인 연세대학교

한국교회가 이 분들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방문했던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가족 영역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같은 마음으로 낯선 땅을 향해 헌신했던 선교사로서의 Völker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토요일에는 경복궁을 방문했고 역사 박물관, 인사동, 그리고 청계천까지 걸어가면서 한국의 전통과 현대 발전까지 풍요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별히 마지막에 청계천가에서 우연히 베를린 장벽의 일부(Völker는 독일인이다.)가 전시된 것을 발견하고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선교사 출신답게, 새로운 문화와 음식, 환경에 대해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일주일간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Völker뿐 아니라, SEAN과 KTEE가 상호간에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생겼다고 믿는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 자리



청계천에서 만난 무너진 베를린 장벽 일부 전시물



## 마치며

Dr. Völker가 SEAN의 디렉터로 부임한 후에 조용하면서도 변화와 진보가 있었다. 온라인과 디지털 사역이 시작되었고, 여러 언어 버전의 교재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졌다. 그의 선교사 출신으로서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이유가 컸을 것이다. Dr. Völker는 KTEE에게 많은 사역적 영감과 도전을 주었다. 또한 이번 방문이 Dr. Völker 개인 뿐 아니라, 한국의 TEE 사역과 KTEE 미니스트리의 노하우가 전 세계 TEE 사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TEE 사역이 소원해진 선교지에서 다시 그 일을 일으키고 있는 한인 사역자들에게 더 실제적인 지원과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번 Dr. Völker의 한국 방문 일정은 다음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G-JeoYcrmSw?si=WqqOsjC4O93G1VPM>



## 인터뷰 Dr. Markus Völker

#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넘어서는 사역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전세계 SEAN 파트너들을 축복하는 일에 KTEE가 쓰임 받았으면...



**Dr. Markus Völker**  
SEAN International 디렉터

### 간략한 자기 소개를 해 주십시오.

나는 가톨릭/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OM(Operation Mobilisation)을 통한 전도 활동을 통해 선교에 대한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Logos II호에서 2년의 단기 사역을 시작으로 타지키스탄, 그리고 페루에서 14년간의 사역을 통해 저는 TEE와 SEAN International의 사역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2018년부터 국제본부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 모니카와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KTEE 사역을 살펴보고,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소감과 느낀 점이 있다면?



한국에 처음 왔는데 KTEE 가족들이 저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사역에 최적화된 사무실이 있고 매우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에게 매우 친절하셔서 마치 저를 그의 날개 아래로 데려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은 나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정말 기뻐던 점은 세미나가 너무 잘 준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KTEE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참여했고, 세미나 강의를 두 사람에게 의해 진행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참여자들이 소그룹을 통해 직접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우리 KTEE 주변과 한국 기독교 발자취, 그리고 투어를 통해 느낀그 감상이 있다면?



서울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남미의 도시들에 비해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부한 문화, 전통, 훌륭한 음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신실한 분들을 보기 위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그 복음을 자기 나라에만 두지 않고 전 세계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TEE 가족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은 나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 주일에 '나의교회', '지구촌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다. 어땠는가?

첫 번째 교회는 매우 젊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잠재력은 자신의 나라를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규모가 컸고, 목사님과 스테프이 나를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도록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나이, 체력, 교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KTEE는 전 세계의 다른 SEAN 파트너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SEAN 디렉터로서 KTEE와 한국 사역에 대한 기대하는 바나 제언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사역은 SEAN에게 특별합니다. 한국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사역은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그것을 넘어서는 사역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KTEE가 계속 이 일을 해나가길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TEE 그룹을 만들어야 할까요? KTEE는 젊은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SEAN 과정을 설계해야 할까요(예: 애니메이션)?

KTEE는 전 세계의 다른 SEAN 파트너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을 보여 주실지 지켜봅시다!





## 한국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십시오. 그들이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정직하고 투명하며 온유한 리더가 되십시오. 모든 것을 알지만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회 지도자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독교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선교와 TEE에서 여러분의 놀라운 문화, 역사, 모범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를 주십시오. 그들이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 익스텐션센터 교회 탐방 광주 빛소리교회

**“본질적인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TEE가 있어 행복”**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배움의 파트너, 어른들의 지원은 큰 격려

TEE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은 사역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이다. 이번 저널에서는 광주 빛소리교회를 방문하여 담임 박민식목사와 대담을 가졌다. 세미나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TEE 방법대로 하고 있는 교회를 만나면 대화가 더 흥미롭다. 빛소리교회가 하고 있는 방식이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 TEE를 만남 : 우리교회에게 꼭 맞는 것 같다!

제가 개척을 하고 훈련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가까운 선배 목사님께 TEE라는 걸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왜만한 교재는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TEE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마침 광주에서 TEE 세미나가 있다고해서 바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TEE에 대해 들어보니,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너



**박민식 목사**  
(광주 빛소리교회 담임)



▲ 남편반, 그들도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다



▲ 주부반, 소풍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의 훈련들이 조금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무엇보다 TEE는 아래에 답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교재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사들만 답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TEE는 그런 형식이 아니더라고요.

더구나 저희 교회는 다 젊은 층이라 소그룹에 익숙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TEE하고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기초과정은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도자 과정인 세퍼드 라이프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권씩 열심히 했습니다. 한 권 마치면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하면서요. 중간에 코로나 기간으로 잠시 쉬 틈에 현재 3권 반이 3개 그룹, 5권 반이 1개 그룹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퍼드라이프는 교회 체제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과정이라서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 1. 교회가 아닌 신자들을 위한 과정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낀 점은 이 책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던 훈련 과정은 확신 >성장>제자>사역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순환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한 번 돌아가니까 더 성장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방식은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고, 훈련되어 성장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신자가 아니라 교회 매커니즘을 위한 것 같다는 사실이,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가르치는게 옳은가?’



세퍼드라이프는 그렇지 않더라구요. 마태복음 말씀 그대로, 주님되신 예수님을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교회조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면서 신자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변하고, 성장하면, 당연히 교회는 자연스럽게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TEE는 그 마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는 KTEE에서 가르쳐주신 방식 그대로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습을 철저히 하고, 가이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요. 다만, 모임을 시작할 때,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마태복음에서 어디쯤인지,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느 단계인지, 어떤 흐름인지 말하도록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복음서 어디를 봐도 어떤 맥락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가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우연히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 배경을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더

*저희는 모임을 시작할 때, 그 단원이 성경 어디쯤인지, 예수님의 생애 어느 시기인지 말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도 신자들도 흐름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라구요. 순서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을 생애 앞부분으로 말한다는 등) 그러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 신자들도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암송을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 자체를 알고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암송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간판도 제대로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처음에는 정말 다양한 과정들을 적용하면서 애를 썼었는데, 지금은 세퍼드라이프를 중심으로 한 TEE로 훈련과 양육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 사역도 주일과 예배 준비 외에는 대부분 TEE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 2. 목사가 당당하고 즐겁게 사역하게 하는 과정

TEE의 강점 중 하나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가장 좋다는 사실입니다. 세퍼드라이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가 되고, 배우게 됩니다.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요. 저도 받은 감동을 신자들도 책 선생님에게 배우는 거 같아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설레는지 모릅니다.

기존의 교재들을 준비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읽어야 하는 책도 많았고요. 하지만 TEE를 할 때는 저도 신자들도 지금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도자 가이드를 중심으로 한 이 커리큘럼이 명확하니까, 저도 준비를 할 때 편하고, 집중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제가 다양한 훈련과정을 적용했었는데, 그걸 따라가다보면 속된 말로 신자들을 잡겠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부담이고 걱정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데에 힘쓰다보니, 본질을 놓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TEE는 정말 그냥 예수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다른 군더더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로 사역을 끌어가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면,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을 잘 차려줍니다. 그게 서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지요!”*

## 3. 부부, 가정이 살아나는 과정

저희 TEE모임의 핵심 시간은 목요일 오전반, 저녁반입니다. 오전에는 주부들이 모이고, 오후에는 남편들이 모입니다. 참 감사한 건 젊은 사람들이 말씀 훈련받을 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오전에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을 해줍니다. 그게 젊은 주부들에게는 그렇게 격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잘 먹고, 잘 들어주고, 그것만으로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쁨의 시간

이 됩니다. 물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에는 더 힘써 섬깁니다.

아내들은 오전에 남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놉니다. 그럼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잘 포장해서 저녁 남편모임에 반영을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존경하는지도 조금 잘 드러나게 말해주고, 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나름대로 슬쩍 전달합니다. 그게 가정의 갈등을 풀어가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재미있는 것은 남편들 모임입니다. 목요일 저녁 모임에 가는 길에 아내들에게 다들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한 것들을 물어보고 온다고 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목사님께서 어떤 질문을 중요하게 하셨는지.. 그게 나름의 준비가 되는가

롭니다. 그렇게 두 모임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갑니다.

그러다보니 평일에도 사실 잘 대화 안하던 부부들이 예습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서로 공부하다가 궁금하면 물어보고, 암송 점검도 해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세퍼드 라이프 하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난다’입니다. 실제로 법원까지 간 부부도 있었는데, TEE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금은 너무 화목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주 모범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더 감동했습니다. 나아가 TEE 모임을 하는 부부가 당연히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젊은 부부들 중심으로 교회가 힘있게

“TEE는 목회자가 당당하게  
예수님 이야기만 전하게 합니다.  
교회 조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퍼드라이프를 하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난다! 이걸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바입니다.”

움직이는거죠. 물론 소그룹에서는 부부가 따로 하는 대신, 주일 사역에는 항상 함께 봉사하게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4. 신자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을 갖는 과정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TEE를 자주 소개합니다. 물론 다들 사역의 현상이 다르니 마음처럼 시작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런 소개할 때 저는 TEE를 하나의 샘물로 비유하곤 합니다. 한 사람이 사실 살다보면 지치게 되고, 그게 설교나 기도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TEE를 하면, 그 영혼에 깊은 샘물을 하나씩 마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TEE의 책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성장하니까 결국은 다 자기 것

이 됩니다. 그러니 목양을 할 때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쪽으로 가면 더 힘있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신자들이 성장하면 그거야 말로 목회가 즐거워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 5. 이제 리더를 세울 시간.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

아직은 멤버들이 좀 젊은 편이라 인도자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임 중에 인도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대가 열리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1권을 시작할 것도 기대가 되고, 6권을 통해 세퍼드라이프를 다 마치면 얼마나 좋을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도구를 만나게 해주신 KTEE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번 인터뷰를 위한 만남에는 박민식목사의 추천으로 최근에 TEE를 시작한 동역자 서진호목사(광주은파교회 담임)도 함께 했다. TEE를 경험하면서 느낀 즐거움과 궁금한 점등에 대해서 나누고 교제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KTEE 소식과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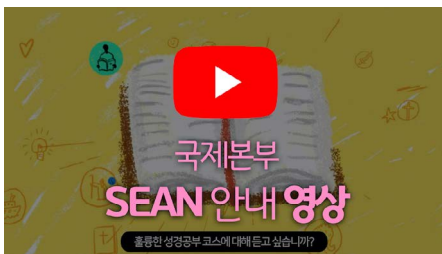
# 2023 가을 일정과 영상 자료

## TEE 세미나 일정

11월 2-3일 (목금)	대면/지구촌교회
11월 30일 - 12월 1일 (목금)	온라인
2024년 1월 4-5일 (목금)	대면/지구촌교회

## 새로운 영상 자료들

SEAN 국제 본부에서 제작한, TEE 안내 영상 한국어 자막 버전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TEE 세미나를 안내하는 영상도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교회 및 목회자 모임에서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고품질 버전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ktee@ktee.org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PDF의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로 이동합니다.)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E 세미나



홈페이지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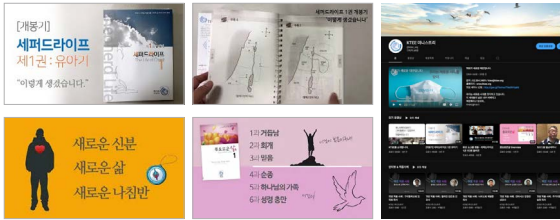


# TEE 디지털 자료들

## 그룹 모임 전

세미나 이후 교재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 1. 개봉기 영상과 OVERVIEW



교회에서 과정에 대해 소개할 때 사용하는

### 2. TEE 소개 자료



학급 모임 과정을 복습할 수 있는

### 3. 샘플 영상 + 적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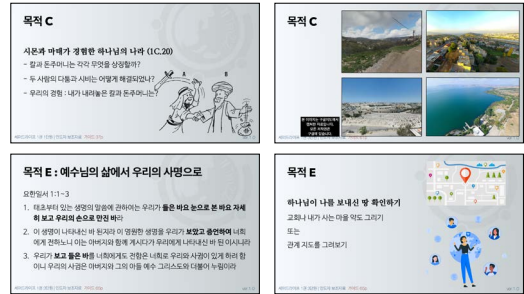


본 자료들은 센터등록시 USB로 제공되고, 이후 홈페이지 센터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그룹 모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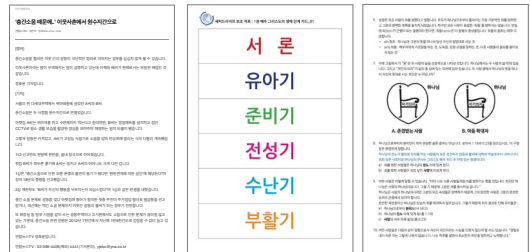
학급 모임 중 가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 4. PPT 자료



세퍼드라이프 모임 중에 필요한 인도자 준비를 돕는

### 5. 세퍼드라이프 자료 파일



## 익스텐션 센터 메뉴얼

인도자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 6. 센터 핸드북 책자 + 슬라이드 + 사용매뉴얼





TEE와 함께 2024년을 준비하십시오!

# TEE 지도자 세미나

**대면세미나** ▶ 11월 2일 ~ 3일 (목-금) 오전 9:30~오후 5:00

서울 지구촌교회 / 양천구 목동동로 156 지구촌교회사랑채플

**온라인** ▶ 11월 30일 ~ 12월 1일 (목-금) 오전 8:30~오후 2:30

KTEE는 지역교회를 돕기 위해 계속 개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TEE를 처음 만나는 분들 뿐 아니라, 세미나 이후 시작하지 못했거나 수료한지 오래된 교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TEE는 한국교회를 응원합니다!**



## 강사진

한순진 목사 | 디렉터, 20여년 교회교육, 20여년 TEE 사역 경험  
 김일경 목사 | 해외 이사장, 15여년 이상 하와이, 베트남과 여러나라에서 TEE 사역  
 최 용 목사 | 코디네이터(한국), 20여년 TEE 사역에 동역, MK 들을 TEE로 양육  
 임홍일 목사 | 코디네이터(미국), 15여년 티 사역, 미국 텍사스에서 지역교회 성도 양육

## 소그룹 튜터

김승진 목사 | 총은교회 목회 현장에서 TEE로 사역 (전 이랜드, 현 (주)웹티즌 사목)  
 이현충 목사 | 실무 간사, 15여년의 풍부한 TEE 실무 경험, 여러 워크샵 진행

## 등록 방법

링크를 통해 **세미나 신청페이지** 작성 후 입금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문의 : 02.334.3489 | ktee@ktee.org | www.ktee.org)

[ktee.org](http://ktee.org)



◀ 클릭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전 세미나가 끝나면  
 다음 세미나가 같은 링크에서  
 열립니다.

